

유라시아에 걸친 위기의 활꼴(arc of crisis) 지대: KAL 007기, 유럽 미사일과 1983년의 전쟁 공포

번드 그라이너 함부르크 사회과학연구원

2014년 후반, 독일은 동독 평화혁명 25주년을 기념했다. 지금도 여전히지만 당시로 돌아가서 보더라도,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추동한 1989년 11월의 사건은 기적과 같았다. 총칼이 맞부딪치던 냉전 상황 아래서, 그러한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이런 전개는 독일과 남한이라는 두 국가의 역사 모두와 관련 있는 어떤 주제의 핵심에 이르도록 만들고, 이는 전혀 새로운 시점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 바로 1983년이다. 1983년은 핵무기 시대의 평화가 품고 있던 취약점이 두드러진 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발적인 확전의 가능성, 즉 당사자들의 행위와 의도와는 무관하게 통제를 벗어나는 사건들의 위험성이 부각되었던 한 해였다. 연구자들이 수많은 사료를 발굴했지만 아직 냉전이라는 사건은 미결로 남아 있으며, 냉전의 뜨거워졌던 두 지역, 남한과 서독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주제어 냉전, 위기의 활꼴 지대, KAL 007기, 1983년의 전쟁 공포, 남한과 서독

I. 들어가며

냉전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의가 있다. 이토록 다양한 정의 중에서도 당대의 정치와 심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다.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 사람이 두려움에 대응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중과 개인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과 사회는 ‘왜’ 그리고 ‘어떻게’ 두려워했는지, 왜 그들이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용했는지에 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Greiner et al., 2009).

이러한 점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1950년대 유럽의 곳곳에서 아마겟돈(Armageddon) 핵무기에 관한 두려움이 증대된 시기와

한국전쟁 또는 금문도의 고립된 상황만 보아도 연관이 있다. 또는 강대국들의 제3세계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된 베트남전쟁도 연관이 있다. 이러한 당연한 사례는 제쳐두더라도, 이와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사건이 있다. 바로 아시아-유럽 냉전 또는 1983년의 ‘전쟁 공포’다. 유럽에 미국 퍼싱 II형 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이 배치되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었고, 셀 수 없는 유럽인들이 거리에 나와 실재하지도 않는 ‘유로시마’에 대한 시위를 했다. 또한 동시기에 많은 남한 국민을 포함해 서양인들도 소련 공군의 공격으로 KAL 007기를 격추한 사건 이후 복수를 요구했다.

II. 제2의 냉전: 유로-아시아의 공통 경험

이러한 유로-아시아에 얽힌 경험의 공통분모는 소위 ‘제2의 냉전’이라고 불리며, 1945년 이후 또 한 번 혼란스런 시대의 정점에서 초강대국 간의 대치를 상징했다. 그 시대의 험악한 분위기는 당시에 표현된 정치적 발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미국 국무장관인 알렉산더 헤이그(Alexander Haig)는 “평화롭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Haig, 1981).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쓰레기처리장으로 보내버릴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그는 공산주의가 예상보다 훨씬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인류 역사의 기이한 장으로 여기며 이를 외교 논의로 확장시켰다.¹

또한 국방부 장관인 캐스퍼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는 역지가 실패로 돌아갈 때 미국은 전면적인 핵무기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최종으로 생존해야만 한다고 발언했다(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1981). 냉전의 전통적 양상이었던 ‘반사하기’ 전술에 따라, 소련 또한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인 유리 안드로포프(Yuri Andropov)는 미국이 독일 나치당의 ‘전격전(Blitzkrieg)’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의 악랄함을 히로시마의 사건을 인용하며 비난

¹ *Neue Züricher Zeitung* 1981/5/18;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 Politik*, Vol. 27, 1983, pp. 1000, 1001.

했다. ‘핵무기 바르바로사 작전’의 발상은 대중화되었다. 안드로포프의 측근 보좌관은 “이는 소련과 그 우방에 대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Arbatow, 1982: 1137; Adamsky, 2013: 18, 22).

터무니 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제2의 냉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정치군사력 혼란의 요점 또한 드러났다. 강대국들은 적대적인 언어적 충돌을 넘어 군사력에 관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소련이 강대국으로서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폴란드의 영역싸움이었다. 미국은 ‘심리 작전’ 또는 ‘심리전’을 선택했다. 미국의 정보와 군사 작전은, 소련이 자국의 영공과 해안지대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고 이전에 만들어진 경고시스템은 시대에 뒤쳐져 있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유리할 것이라는 동기 부여 목적으로 되풀이해 실시되었다. 미국 폭격기는 반복적으로 소련 국경 몇 초 전에 방향을 전환하며 모의공격을 진행했고, 1981년 9월 미국 군함은 소련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무르만스크(Murmansk) 인근의 바렌츠(Barents) 해까지 진입했다. 또한 미 해군 전투기는 반복적으로 쿠릴 열도 부근에서 ‘플리텍스 83(Fleetex 83)’ 해군 훈련을 하며 소련 영공에 진입했다. 나토(NATO)는 1983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에이블 아처(Able Archer)’ 훈련을 계획했다. 과거의 훈련과 달리, 재래전부터 핵무기전쟁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예행연습이 실시되었다. 또한 이전의 방법과 달리 핵무기 발사 명령은 소련군이 해독할 수 없는 코드로 감추어졌다(Fischer, 1997: 6-10; Scott, 2011: 767; Voß, 2014/2015).

정치군사사는 아직도 많은 부분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유럽의 정보 및 군사 작전과 북태평양의 대규모 함대 훈련이었던 ‘플리텍스 83’은 아직도 많은 부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미국의 많은 자료는 잘 정돈되어 있으나, 소련의 자료들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에이블 아처’는 이러한 면에서 아주 적절한 예다. 모스크바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보안위원회와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의 통신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서로 상충하거나 명백하게 거짓된 내용이 많다. 동독에 위치한 소련 핵무기 전투기 제트기의 활주로 정보와, 동유럽 소련 지상부대의 전투 정보, 그리고 다양한 소련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준비태세 정보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정보가 올린 원인과 누가 정보를 올리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역사학자들은 모스크바의 전쟁 공포가 세계의 평화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하고, 소련의 대항조치가 또 다른 냉전의 일반적인 거울 이미지(‘반사하기’)의 한 예시라고도 말한다. 핵무기를 둘러싼 설전은 상대방이 똑같은 대응을 하도록 유발한다(Kramer, 2013; Mastny, 2008).

III. 유라시아의 위기의 활꼐 지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역사학자들은 1980년 초 전쟁 공포의 주요한 요소들을 다시 구조화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유라시아에 걸쳐 있는 위기의 활꼐(arc of crisis) 지대와 연관된다. 무엇보다도, 억지의 정치가 두드러진다. 통념에 따르면 억지는 핵무기 시대 평화의 기반으로 여겨진다. ‘제2의 냉전’은 주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억지의 모호함을 부각한다고 평가된다. 억지는 단지 공포의 확대를 통제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같은 이유로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 1950년대 억지전략은 적군에 대한 교란, 전쟁과 평화에 관한 지속적이고 모호한 논의, 적국의 취약성에 대한 과장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중화되며 주입되었다. 이러한 핵 억지정책은 1980년대 초 제2의 봄을 맞이했다. 신뢰와 확실성은 스스로를 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전략이란 깊은 수렁에 다가가 무모한 도전과 단순한 엄포 정책 사이의 긴장감 속에 적을 잡아두는 기술을 의미한다. 억지는 두려움을 기초로 한 심리전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지속시켜야만 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소련 적군을 교란시키고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놀라게 만드는 전 세계적 공포의 존재로 변했다. 말 그대로 매일 고급 군사계획이 언론에 유출되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정보들은 내부 고발자가 아닌 정부관계자와 이들의 정보 자문위원들로부터 유출되었다. 이에 따라 문제적 소지가 있는 많은 문서들이 대중에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중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의 ‘대통령 지령 59’,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의 ‘국가안보 결정 지시’, 즉 ‘회계연도 1984-99의 국방지침’과 설상가상인 ‘단일 통합 작전계획 6번’, 즉

‘SIOP 6’의 일부분이 유출되었다. 이들은 내용과 범위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는 끈질긴 핵전쟁 또는 핵무기 교환의 미세조정과 통제 개념 속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회계연도 1984-99 국방지침’의 작성자들은 “내란이나 핵전쟁과 같은 갈등의 모든 단계에서 소련에게 승리하기 위한 계획”을 상정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 여름 유명 잡지 『대외정책(Foreign Policy)』의 편집자는 “승리는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잡지를 출간했다. 이를 통해 핵전쟁의 시나리오가 확장된 범위의 영향력 속에서 소련연방을 부정하는데 사용되었다(Gray and Payne, 1980).

미국이 핵전쟁을 유발하거나 촉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련의 지도자들은 워싱턴 정책 결정 기구의 미약한 결정권 속에서 미국이 언제 또는 무슨 이유로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정치나 군대의 명령, 통제, 통신에 반하는 처참한 ‘침수공격’을 수행할 수도 있는 능력과 가능성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다. 모스크바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문제적이고 불확실한 정보의 과잉화는 이러한 심리전쟁의 전략적 핵심이었다. 미래를 대비하여 “적에게 더 많은 겁을 주는 만큼,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슬로건이 주문처럼 사용되었다(Adamsky, 2013: 11, 23, 24). 이는 유럽과 아시아, 특히 서독과 남한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IV. KAL 007기 사건과 전쟁 공포

1983년 가을 ‘제2의 냉전’이 다가왔다. 9월 1일 KAL 007기는 269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륙했다. 기착지였던 알래스카의 앵커리지(Anchorage)에서 연료를 주입한 뒤 KAL 007는 서울로 가기 위해 러시아 영공인 사할린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의 소련 군사기지에 거의 접근했다. 이러한 동

² Fiscal Year 1984-88 Defense Guidance, quoted in: Halloran, Richard (1982, May 30). Pentagon draws up first strategy for fighting a long nuclear war. *The New York Times*;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 Politik*, Vol. 27, 1982, p. 1012.

떨어진 비행 경로는 많은 갈등 요소와 무책임한 추측들을 야기했다. 세부적 사실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승무원의 실수들, 무엇보다도 부주의한 비행이 재난을 초래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그 23기와 수호이 15기는 영공에서 20분 동안 침입자를 추적할 것을 지시받았고 수호이 15기는 명령에 따라 조종사에게 4번의 경고용 포를 발사했다. 일본 시각으로 새벽 3시 24분, 앵커리지에서 이륙한 지 약 5시간 반 후, 수호이 15기 중 한 대가 2발의 미사일을 발포했고, 이 공격이 KAL 007기에 치명적이었다고 추후 밝혀졌다.

참사가 지난 며칠 후 미국 정보기구인 공군정보사령부, 국가정보국, 미국국가안전국 등은 자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격추는 우발적 확전의 사례였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서구의 주장과는 달리 소련이 고의적으로 민간 여객기를 격추시킨 것은 아니었다. 미사일을 발포했을 때, 수호이 15기는 최소 3,000피트 아래에 있었고 KAL 007기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인지하기 불가능한 위치였다. 또한, 소련 방공부대는 해당 지역 미국의 '심리전'에 교란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소련의 방공시설들을 조사하고 적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며,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소련의 국경에서 간첩비행을 강화했다. 서유럽과 극동지역에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70회 비행을 수행했다. 8월 31일 밤, RC-135 정찰비행기는 소련 방어지대인 사할린 상공에서 정례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RC-135기와 KAL 007기는 미군 항공기가 본거지로 방향을 틀어 돌아가기 전까지 교대로 감차가 반도를 비행했다. 국방 당국자들의 공포와 그 공포 속의 대응은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많은 인식의 오류들과 동일한 것이었으나, 이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다(Hersh, 1986).

냉전의 위기관리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동일하다.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료들은 그들 정보 당국이 발견한 반대의 근거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련을 고의적 살인 및 공포 대상으로 비난한다. 심지어 최고의 정보국이 제시한 자료조차 무시한다. 대신 깊이 각인된 반소 감정, 편견 등의 사고방식이 만연했는데, 이는 모스크바에 대한 선전 승리의 전망에 따라 더욱 고조되었다. 인류 최후의 무기를 담당하는 미국 엘리트들은 대체로 상황을 저울질하거나 상대방을 선의로 해석하려는 의지 모두 여실히 부족했다. 소련연방은 그들의 전통적 태도를 유지하며 동일하게 대응했고, 미국을 표적으로 한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 수를 늘리며 워싱턴의 군사력 과시에 보복할 것을 표명했다. 그 후, 미·소 관계는 쿠바 미사일 사태 이래 최악의 상태였다.

여전히 대중에게 주목받지 못한 처참한 사건들이 도처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KAL 007기 사건은 여전히 국제적인 사안으로 조명되고 있다. 9월 26일 자정 직후, 모스크바 남쪽의 군 정찰기에서 적색 경보가 울렸다. 우주기반 위성 시스템인 ‘오코(Okko)’는 소련 본국에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다섯 발 발포되었다고 송신했다. 지상 레이더가 ‘오코’의 고장을 확인하기까지는 17분이 소요되었다. 항공 관제탑이 사소한 사건들, 즉 컴퓨터 센서가 미국 공군기지 위 구름이 비친 태양광선을 미사일의 붉은 꼬리로 오해하는 등의 사건들이 겹쳐 혼동이 생길 수 있다.

11월 초 NATO의 ‘에이블 아처’ 훈련에서 송신된 수상한 신호로 인한 혼란과 오인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확실히 ‘에이블 아처’는 단순한 훈련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는 오랜 무력 과시에 대항하여 임박한 공격을 위한 연막작전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도치 않은 의사결정, 때로 전쟁까지 이어지는 위기 확전의 정치적 구조다.³ 몇몇 역사학자들처럼 1983년을 냉전시기 가장 위협한 해였다고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무모한 정치, 군사적 허세, 이념적 열병의 회색지대가 만연했음은 분명하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사건들이 기밀이었는데도 유럽과 미국 전역은 제2냉전의 극단적인 역동성에 수없이 동요했다. 칭송 받는 『원자과학자들의 게시판(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편집자들은 그들의 상징인 종말시계(doomsday watch)를 자정 3분 전으로 앞당겼다. 또한 폴뿌리 평화운동가들은 종말론적 논의에서 불거진 두려움에 대한 전 세계적 캠페인을 수행했다. 한 예로, 독일은 전쟁 임박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만일 마지막 순간에 미국의 새로운 선제공격의 무기 배치를 막지 못한다면, 세계가 핵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황폐한 공습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제2냉전의 부인할 수 없는 긴장감을 상고해 볼 때, 이러한 주장들은 정당화되지 못하더라

³ Stanislaw Petrow와의 인터뷰 in: Locke, Stefan. 2013. Der rote Knopf hat nie funktioniert.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2.2013, p. 7.

도 예상은 가능하다. 그러나 반전운동 및 군비축소운동 주창자들은 때때로 그들의 초기 의도를 넘어서, 두려움을 무기 삼아 그들 단체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회원 모집에만 집중하는 많은 근거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이들은 우연한 동서 대칭적 거울이미지(mirror-imaging)로서 모스크바의 불안감을 초래했는지 모른다.

소련이 불안함을 느꼈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중앙위원회, 군대, 정보기관 관료들의 분위기는 암울한 전쟁 직전 상황에 가까웠다. 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전쟁을 촉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악마적 존재로서 미국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군사적 권력균형은 전반적 비관주의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군사장비의 경우 MX-대륙간 탄도미사일, 퍼싱II 중거리 미사일과 같은 복잡한 컴퓨터 복합기술은 몇몇 사람들에게 미국은 선제공격의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핵무기전쟁의 한계’와 ‘선제 핵공격의 무력화’에 대한 끝없는 논의는 무력에 자신감을 가진 미국이 미래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고조시켜 대결 확전의 구도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유리 안드로포프 또는 군 참모총장 니콜라이 울가코프(Nicolai Ogarkov), 국무장관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j Gromyko)가 1941년 여름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다. 모스크바 노멘크라투라(nomenklatura) ‘바바로사(Barbarossa)’ 시대의 모든 선전적 행위는 순전히 우려를 표출하는 것이었다.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62년 말 쿠바 미사일 사태의 날보다 불안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다(Heuser, 2008).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련 정부가 비상대책을 강화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1981년 ‘Raketno-Yadernoe Napadenie’의 약칭인 암호명 ‘RYAN’ 작전이 대표적이다. 소련과 동유럽 정보원들은 군대 이동, 무전 통신, 경찰 활동, 고위급 정치인 및 장교들의 하루 스케줄, 병원의 긴급대처, 헌혈 정보, 국방부의 장시간 근무, 군목까지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서양의 핵 공격에 대한 신호를 감지하고자 했다. RYAN 작전의 많은 부분들, 서독이나 남한과 같은 미 동맹

⁴ Lieutenant General Gelii V. Batenin과의 인터뷰 in: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426, Document 23, p. 10; see also Document 24, p. 106ff.

국가들에 대한 활동조차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당시 미·소 간 확전적 불신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소련 정부가 공격 임박을 확신했다면 선제공격을 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소련은 경고조로 보유한 핵무기를 발포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소련의 전 고위급의 관리들은 모스크바 핵무기 전략의 핵심을 되풀이해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자기불신에서 구상된 전략이었다. 소련의 군사전략가들이 자국 군사기반의 유효성을 의심할수록 선제공격을 주장했다.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을 떠나 이는 최소한 위협에 대한 환상은 이어갈 수 있었다. 또한 레이건 정부의 대규모 군비 증강에 따라 이들 사이에 극단적인 망상이 팽배하게 되었다. 압력, 빛, 방사선 감지장치들이 소련 전반에 설치되었고 소련 지도자들의 면직에 대응해 자동 역공체제가 구비되었다. 내부적으로 이 체계는 ‘죽음의 손’으로 불렸다.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Dr. Strangelove)>에서 나오는 ‘종말의 기계’가 본 체계를 적절히 설명해준다. 적절한 이름과는 무관하게 이는 억제 이론을 그 논의의 극단까지 수행한 것이었다(Scott, 2011: 765; Hoffman, 2009: 152ff).⁵

IV. 맺는말

제2의 냉전에 관한 수많은 관점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는 우리의 역사적 지식이 채워져야 할 빈자리가 많은 부분 존재함을 보여준다. ‘에이블 아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소한 소련 지휘 교환 속에서 정보원과 정치 권위자들의 소통은 단편적이었다. 소련이 ‘에이블 아처’에 뒤따른 대비책과 RYAN 전략 또한 마찬가지였다. 바르샤바 협정의 동맹국들이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가졌는가, 동독 국가안보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악명 높은 비밀경찰 ‘슈타지

⁵ Lieutenant General Geli V. Batenin 과의 인터뷰 in: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426, Document 23, p. 10; Viktor M. Surikow and Colonel Varfolomei V. Korobushin과의 인터뷰, in: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426, Document 7, p. 135 and Document 24, p. 107.

(Stasi)'가 어떻게 독일 연방 공화국이었던 서쪽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가? 남한과 같은 국가 역시 공격의 대상 중 하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는가? 서독, 남한과 같은 미 동맹국은 소련의 군사력과 자신감을 동요시키기 위한 미국 군사작전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심지어 냉전 연구 중 가장 진보적인 책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대부분 언급하지 않았다.⁶

해결이 필요한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했으나, 1980년대 초반은 곤혹스러운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냉전 초기의 격렬한 위기의 반향 정도에 불과했다. 전략적인 원자폭탄의 사용 여부에 관한 비공개 토론에서 증명되었듯이 한국전쟁, 쿠바 미사일 사태, 베트남전쟁 동안 핵 사용에 대한 위협성이 보다 급박하게 나타났다. 1969년 중반 레오니드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가 중국의 핵 원자로 설치에 반대하는 소련의 선제공격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의문을 가할 때 핵은 그 입장에서 하나의 중대한 선택지였다. 또 하나의 예로, 1973년 욘 키푸르(Yom-Kippur) 전쟁 당시 소련의 계산착오였음에도 불구하고 닉슨 정부는 전략군에게 전면전 직전 단계인 '제2방위준비태세'를 지시했다(Trachtenberg, 2012). 1980년대 초 미국의 '심리전' 또는 '폴리텍스 83', '에이블 아치'와 같은 군사력 과시는 의심할 것 없이 의도를 넘어선 확전의 위협성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심리적 소모전 영역에 머물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1983년은 냉전의 마지막이었다. 소위 말하는 '레이건 역전', 오직 반공산주의 의제만으로 집무를 수행한 대통령의 역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레이건 대통령의 뜻밖의 소식은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분명 미국 전역에서의 비판과, 영향력 있는 공화당 보수 지지세력이 그 힘을 행사했다. 이후 가톨릭 주교의 지원과 복음주의 풀뿌리 운동가들의 핵억제운동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상황의 역전은 국외적 요소를 통해 가능했다. 고르바초프의 소련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핵무기 초강대국의 책임자가 핵 억지 논의를 철회하고 거듭된 위협 정책을 대신해 신뢰 구축과 일반적인 양보를 추가했다(Fischer,

⁶ www. Berliner Colloquien zur Zeitgeschichte. 1983 – The Most Dangerous Year of the Cold War? 참고.

1997; Talbott, 1984; Mann, 2009). 이러한 사건이 보다 이전에 발생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980년대는 새로운 외교정책의 기준들이 수립되었다. 서유럽 동맹국들은 태평양동맹에 대한 가시적인 균열에 위협을 가하며 소련에 대한 미 군사 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남한에서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레이건의 첫 임기에 미·소 외교가 또 한 번 최악의 상황을 이루는 동안 남한은 국내적 ‘융합’과 함께 중국, 일본과의 관계 유연화가 이루어졌다. 동시대적 상황 속에 두려움의 시대는 후퇴했으나, 이를 통해 국가안보정책은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1991년 소련의 붕괴는 마침내 현대 역사에서 하나의 기괴한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었을 뿐, 새로운 난제들이 쏟아져 나와 곧 예전의 냉전적 대응방식과 사고방식이 되살아났다.

투고일: 2015년 5월 11일 | 심사일: 2016년 1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15일

참고문헌

- Adamsky, D. D. 2013. “The 1983 Nuclear Crisis – Lessons for Deterrence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6(1), 4-41.
- Fischer, B. A. 1997. *The Reagan Reversal. Foreign Polic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Lond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Fischer, B. B. 1997. *A Cold War Conundrum: The 1983 Soviet War Scare*. Washington, DC: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enter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
- Gray, Colin S. und Keith Payne. 1980. “Victory is Possible.” *Foreign Policy* 39, 14-27.
- Greiner, B. 2009. “Angst im Kalten Krieg. Bilanz und Ausblick.” Ders./Christian Th. Müller/Dierk Walter, Hg. *Angst im Kalten Krieg*, 7-31. Hamburg: Hamburger Institut für Sozialforschung.
- Haig, Alexander. 1981. quoted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2.1.1981.
- Halloran, Richard. 1982, May 30. “Pentagon Draws up First Strategy for Fighting a Long Nuclear War.”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

- nytimes.com (검색일: 2014. 12. 2).
- Hersh, S. M. 1986. *"The Target is Destroyed": What Really Happened to Flight 007 and What America Knew about it*. New York: Random House Inc.
- Heuser, Beatrice. 2008. "The Soviet Response to the Euromissile Crisis, 1982-83." In Leopoldo Nuti, ed. *The Crisis of Détente in Europe. From Helsinki to Gorbachev 1975-1985*, 137-149. London: Routledge.
- Hoffman, D. 2009. *The Dead Hand: The Untold Story of the Cold War Arms Race and Its Dangerous Legacy*. New York: Double Day.
- Kramer, Mark. 2013. "Die Nicht-Krise um 'Able Archer 1983': Fürchtete die sowjetische Führung tatsächlich einen atomaren Großangriff im Herbst 1983." In Oliver Bange, Bernd Lemke, eds. *Wege zur Wiedervereinigung: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in ihren Bündnissen 1970 bis 1990*, München 2013.
- Locke, Stefan. 2013. "Der rote Knopf hat nie funktioniert."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2.2013, p. 7.
- Mann, J. (2009). *The Rebellion of Ronald Reagan: A History of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Penguin.
- Mastny, Vojtech. 2008. "'Able Archer': An der Schwelle zum Atomkrieg?" In Bernd Greiner, Christian Th. Müller, Dierk Walter, eds. *Krisen im Kalten Krieg. Studien zum Kalten Krieg*, Vol. 2, 505-523. Hamburg.
- Scott, Len. 2011. "Intelligence and the Risk of Nuclear War: Able Archer-83 Revisited."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6, 759-777.
- Trachtenberg, M. 2012. *The cold war and after: History, Theory, and the logic of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lbott, S. 1984. *The Russians and Reagan*. New York: Vintage.
-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Wireless Bulletin*, 18.6.1981.
- Voß, Klaas. 2014/2015. "Die Enden der Parabel. Die Nuklearwaffenübung Able Archer im Krisenjahr 1983." *Mittelweg* 36 23, 73-92.
- Interview with Lieutenant General Gelii Viktorovich Batenin by John G. Hines, August 6, 1993 in *Soviet Intentions 1965-1985: Volume II Soviet Post-Cold War Testimonial Evidence*, by John G. Hines, Ellis M. Mishulovich, of BDM Federal, INC. for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Net Assessment.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426, Document 23, p. 10
Interview with Colonel General Varfolomei and Vladimirovich Korobushin with participation by Senior Defense Department Advisor Vitalii Kataev by John G. Hines, December 10, 1992 in Soviet Intentions 1965-1985: Volume II Soviet Post-Cold War Testimonial Evidence, by John G. Hines, Ellis M. Mishulovich, of BDM Federal, INC. for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Net Assessment. Document 24, p. 106ff

Abstract

Europe-Asian Arc of Crisis: KAL 007, Euro-missiles and the War Scare of 1983

Bernd Greiner Hamburg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n late 2014, Germany celebrated the 25th anniversary of the peaceful revolution in its eastern region. In real-time and ever more so in retrospect, the events of early November, 1989 look like a miracle, because they ushered in a revolutionary change by non-violent mean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old War with its bristling armories, hardly anyone would have predicted such an outcome. And this observation takes you right into the heart of a topic related both to the German and South Korean histories and brings back to mind an altogether different time-frame: The year 1983. This very year not only highlights the fragility of peace in a nuclear age, but most of all, the potential for inadvertent escalation – namely the risk of events escalating out of control irrespective of the deeds and intentions of the player involved. Even though researchers have unearthed much material, the case is far from closed, not the least from the perspective of two Cold War hotspots like South Korea and West Germany.

Keywords | Cold War, Europe-Asian arc of crisis, KAL 007, war scare of 1983, South Korea and West Germany